한·일 양상 표현의 언어유형론적 비교 탐구

이 건 환*

〈차 례〉

- I. 머리말
- II. 양상의 분류
- III. 양상의 표현 방식
- IV. 양상적 의미의 변화
- V. 양상과 다른 문법 범주
- VI. 맺음말

I. 머리말

양상이란 발화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입장을 표시하는 문법범주이다(Palmer 2001). 한국 문법론에서는 학자에 따라 문법성과 의미성의 선택적 강조에 따라 이 둘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서법은 화자가 사태와 대결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수적 의미가 일정한 동사의 형태로 구현되는 문법범주이고, 양태는 서법범주나 기타 어휘적 수단에 의해 나타나는 부수적인 의미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범주로 파악한다. 이를테면 직설법, 가상법, 명령법은 일정한 형태적 특성을 보여준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다는 점에서 서법범주로 묶을 수 있고 개연성, 가능성, 확실성은 서법범주뿐만 아니라 다른 어휘적 수단에 기대어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양태성 내지 양태범주로 묶는다는 것이다(남기심·고영근 1985, 이남순 1998). 본고는 언어 유형론의 보편적 성격에 따라 이 둘을 엄밀하게 구분하려는 주장을 지양하고 이들이 형태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어¹⁾의 양상 실현 방식은 동사의 활용형, 접미어, 조동사, 양상동사, 종조사, 어구 등 다양한 형식에 의해 표현된다. 또 독립적으로 실현되는 것에는 부사, 동사, 형용사 등이 포함된다. 한국어와 비교할 때 물론 이들이 구현되는 범주나 성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어 문법에서 조동사는 동사에 붙어 의미적 보조기능을 하는 요소로 접미어나 보조어미의 성격이 강하고 독립적인 동사는 아니다. 또 한국어의 ‘먹어 보다, 가고 있다’에서 볼 수 있는 ‘보다, 있다’ 등의 조동사류는 일본어에서 보조동사라고 부른다. 종조사는 동사 뒤에 붙어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것인데 한국어는 정립된 종조사 범주가 없다.

우리는 인접한 지역에 있는 두 나라의 언어 현상을 양상이라는 범주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두 언어의 개념소와 문법소는 상대적으로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본고는 일차적으로 언어 실현 형태의 보편적 모습과 상대적 모습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두 언어의 총체적 모습 탐구에 기여할 것이다. 이차적으로는 두 언어군 학습자에게 이러한 언어적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어 학습에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1) 본고의 일본어 자료는 박선옥 박사의 도움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II. 양상의 분류

1. 명제 양상(**proposition modality**)과 사건 양상(**event modality**)

Palmer(2001: 7-8)에서는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가 작용하는 범위에 따라 명제와 사건을 구별하였다. 명제 양상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입장으로 문장 내용에 대한 확신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물론 문장 내용에 대한 화자의 확신의 정도는 상대적이다. (1)은 한국어의 명제 양상과 사건 양상을 보인 것으로 (1a)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다. (1b)는 사건 양상으로 명제보다는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화자의 입장을 보인 것이다. (2)는 일본어의 명제 양상과 사건 양상을 보인 것으로 (2a)의 *-kamo shire -nai*는 한국어 ‘-ㄴ지도 모른다’에 해당하는 명제 양상 표현이다. (2)는 한국어 사건 양상과 마찬가지로 명제보다는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화자의 입장으로 (2b)의 *te -mo ii*는 ‘-하여도 좋다’라는 사건 양상 표현이다.²⁾

(1) a. 하늘이 푸르다.

b. 철수가 꼭 노래를 불러야 한다.

(2) a. Taroo - wa ima uchi - ni iru - ka - mo shirenai.

다로-는 지금 집-에 있다-는지-도 모른다

‘다로는 지금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

b. Taroo - wa ima hait - te - mo ii.

다로-는 지금 들어오-아-도 좋다

‘다로는 지금 들어와도 좋다.’

2) 이하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문의 분석주를 한국어로 쓴다.

2. 인식 양상(epistemic modality)과 증거 양상(evidential modality)

인식 양상과 증거 양상은 모두 명제 양상인 점에서 같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다르다. 명제 양상에는 인식 양상과 증거 양상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인식 양상은 명사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반면에, 증거 양상은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증거를 동반한다.

인식 양상: ‘내일은 비가 오다’라는 명제에 대해 화자는 확실성(사실성)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의 판단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확실성의 정도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곧 인식 양상인데, 이것을 나타내는 방식은 언어에 따라 다르다. 영어는 *may*, *must*, *will* 등의 조동사를 사용하고, 한국어는 {틀림없이, 아마도, 어쩌면}과 같은 부사나 ‘알다/모르다’를 포함한 우언적 표현 등이 이용된다. 또 선어말어미 ‘겠’에 의해서 판단을 드러낼 수 있다.

- (3) a. 내일 틀림없이 비가 온다.
 b. 내일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다(오겠다).
 c. 아마도 내일 비가 올 것이다(오겠다).
 d. 어쩌면 내일 비가 올지 모르겠다.
 e.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다.
 f. 내가 나를 때렸겠다. 어디 두고 보자.

일본어의 인식 양상을 나타내는 표현은 어미 *-oo/yoo*(-일 것이다), 조동사 *-daroo*(-일 것이다), *-hazu-da*(-임에 틀림없다/-할 터이다), 형용사 *-ni chigainai*(-임에 틀림없다), 어구 *-kamo shirenai*(-일지도 모른다) 등이 사용된다.

- (4) a. Ashita - wa ame - ga fur - oo.³⁾
 내일 - 은 비 - 가 내리 - 겠다
 ‘내일은 비가 내리겠다.’
- b. Ashita - wa ame - ga furu - daroo.
 내일 - 은 비 - 가 내리다 - 일 것이다
 ‘내일은 비가 내릴 것이다.’
- c. Ashita - wa ame - ga furu - ni chigainai.
 내일 - 은 비 - 가 내리다 - 에 틀림없다.
 ‘내일은 비가 올 것임에 틀림없다.’

증거 양상: 증거 양상은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증거를 표현하는데, 한국어에서도 증거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쓰인다. 즉 감각적 증거나 언어적 증거, 직접적 증거에 의한 추론 등을 담고 있다. 그것은 표현에서부터 강한 짐작이나 객관적 증거에 의한 확실한 추정의 경우에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증거의 양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더-’가 대표적인데 ‘-더-’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그때-그곳’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고, 지금도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서술한다((5) 참조). 또 보편적 진리를 담은 평서문((6) 참조),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어미, ‘르 것’ 등으로 나타난다((7) 참조).

- (5) a. 비가 오더라. (감각적 증거/ 직접적)
 b. 비가 온다더라. (언어적 증거/ 간접적)
 c. 비가 오나 보다.(직접적 증거에 의한 추론)

3) 이것은 문어체에서는 주로 추측표현으로 사용되고, 일상 회화에서는 추측 보다는 의지, 권유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会田貞夫·中野博之·中村幸弘 2004).

- (6) a. 지구는 둥글다. (보편적 진리에 근거)
 b. 해는 동쪽에서 뜬다.

- (7) a. 별자리를 보니, 내일은 비가 오리라.
 b. 그 편지로 판단하면 그가 틀림없이 올 것 같다.

일본어의 증거 양상은 *-yooda*(-인 것 같다), *mitaida*(-인 것 같다), *rashii*(-인 듯하다), *(suru)sooda*(-라고 한다) 등의 조동사와 접미어 *(shi)sooda*(-인 것 같다)에 의해 주로 표현한다. 술어의 서술 형에 연결되는 경우 조동사, 어간에 상당하는 것(술어의 연용형)에 연결되는 경우에 접미어라고 구분했으나, 이들은 모두 동사를 보조하는 활용어미의 성격이 강하다. 이 가운데 *yooda*, *mitaida*, *rashii*는 보고(reported)와 감각(sensory) 증거 모두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shi)sooda*는 감각 증거, *(suru)sooda*는 보고 증거를 주로 나타낸다. 예문 (8a)와 (8b)는 같은 조동사 *sooda*가 사용되었지만 (8a)는 감각 증거를, (8b)는 보고 증거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앞에 오는 동사의 형태로 구분하는데, 동사가 연용형으로 연결되었을 경우 감각적 추정을 나타내고, 동사가 종지형으로 연결되었을 때는 전문을 나타낸다.

- (8) a. Ame-ga furi-sooda.
 비-가 내리-할 것 같다
 ‘비가 내릴 것 같다.’
 b. Ame-ga furu-sooda.
 비-가 내리다-라고 한다
 ‘비가 내린다고 한다.’

3. 의무 양상(deontic modality)과 동적 양상(dynamic modality)

의무 양상과 동적 양상은 사건 양상에 속하는데 의무 양상은 사건에 대한 의무, 허가 등을 표현하고, 동적 양상은 사건에 대한 능력, 의향 등을 표현한다.

의무 양상: 한국어에서 의무 양상은 양태부사 뒤에 오는 명제나 사태를 객관화, 사실화시켜 주관적 신념으로 표현하는 양태로 ‘당위, 필연, 확신, 확인, 의문, 부정’ 등의 양태를 설정한다. 의무 양상은 크게 당위와 필연으로 구분할 수 있을 듯하며, 조동사 ‘-해야 한다’나 선어말어미, 또는 ‘ㄹ 것’, 양태성 부사와 어울린다(9), (10) 참조).

(9) 당위

- a. {당연히, 마땅히} 그가 해야 한다. (단순 당위)
- b. 모름지기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원칙 당위)
- c. 어린 아이가 그런 말을 해서는 못 쓰느니라.(원칙법)

(10) 필연

- a. {반드시, 꼭, 필히} 그는 {왔다/온다/올 것이다/와야 한다}.
(단순 필연)
- b. {어김없이, 틀림없이} 그는 {왔다/온다/올 것이다/와야 한다}.
(무예외적, 규칙적 필연)
- c. {기필코, 기어코} 그는 {왔다/온다/올 것이다/와야 한다}.
(시한적 필연)

일본어의 경우 의무 양상은 어구와 조동사에 의해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 의무에는 한국어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식에 해당하는 *-(a)nakereba ikenai*, *-(a)nakereba naranai*, *-(a)nakutewa*

ikenai, *-(a)nakutewa naranai*, *-(a)naito ikenai* 등의 어구와 조동사 *-bekida*(-해야 한다), *-monoda*(-하는 법이다), *-kotoda*(-할 일이다) 등이 보통 사용된다. 또 허가에는 *-temo ii*(-해도 좋다)라는 어구가 이용된다. 이들은 대체로 한국어의 형식과 매우 흡사하며 양상부사가 동반되어 사용되는 일이 많다.

- (11) a. *Watashi-wa go-ji-madeni, ie-ni kaer-anakereba naranai.*
 나-는 5-시-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5시까지 집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b. *Kimi-wa itsu it-te-mo ii.*
 너-는 언제 가-아-도 좋다
 ‘너는 언제 가도 좋다.’

동적 양상: 동적 양상에는 능력과 의향이 포함된다. 능력의 경우 인식적 능력과 물리적 능력 등 두 종류의 능력이 구별되는데, 한국어의 ‘-을 수 있다’와 ‘-을 줄 알다’ 사이에 유사한 차이가 발견된다((12) 참조).

- (12) a. 철수는 밥을 먹을 수 있다.
 b. 철수는 밥을 먹을 줄 안다.

의향(의지) 표현의 경우 ‘겠’이나 ‘ㄹ 것’이 쓰여 나타낼 수 있다 ((13) 참조). 이 경우 주어가 행동주이며 동시에 화자 자신인 경우이다. 하지만 추측과 비교해 볼 때, 추측은 맞을 확률을 전제로 하는데 반해, 의지는 확률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14) 참조). 또 ‘-으려고 하다’처럼 우연적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으려고 하다’는 의향과 더불어 추정을 나타내므로 동적 양상과 인식 양상을

겸한다고 할 수 있다((15) 참조).

- (13) a. 난 꼭 오겠어.
- b. 내가 1등 하겠다.
- c. 내가 1등 할 것이다.

(14) 네가 그렇게 안 오겠다고 하지만 그때 가면 틀림없이 올 거야.

- (15) a. 철우가 공을 집으려고 한다.
- b. 영희는 피아노를 배우려고 할 것이다.

일본어 능력 표현의 경우 동사 어간에 ‘-할 수 있다’라는 접미어 *-eru*, *-(r)areru*, *-dekiru* 등을 연결하여 표현하거나, 어구 *koto-ga dekiru*(-할 수가 있다)를 사용한다((16) 참조).

- (16) a. *Watashi-wa piano-ga hik-eru.*
 나-는 피아노-가 치-을 수 있다
 ‘나는 피아노를 칠 수 있다.’
- b. *Watashi-wa kuruma-o untensuru koto-ga dekiru.*
 나-는 차-를 운전하다 것-이 가능하다
 ‘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또 일본어 의향(의지) 표현 형식으로는 활용어미 *-oo/yoo*, 동사의 기본형(종지형) *-u/ru*, 조동사 *-tsumorida*(작정이다), *-kida*(-할 생각이다) 등이 주로 사용된다. 어떤 행위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조동사 *-mai*(하지 않을 작정이다)를 사용한다.

(17) a. Watashi - wa daigaku - de hooritsu - o benkyooshi - yoo

나-는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겠다

‘나는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해야지.’

b. isshoni ik - u.

함께 가-다

‘함께 갈 거야.’

Ⅲ. 양상의 표현 방식

한국어에서 양상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영어와 같은 유럽 언어에는 양상을 나타내는 조동사들이 특별히 발달해 있는데 한국어에는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ㄴ 것이다, -ㄴ 수 있다, -야 하다, -야 되다’ 등은 유형론적으로 아주 특수한 형식이다. 왜냐하면 ‘-임에 틀림없다, -것 같다’는 어휘적 방법이지만 ‘-ㄴ 것이다, -ㄴ 수 있다’는 어휘적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전자는 술어 자체에 양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후자는 그렇지 않다.

1. 보조동사

한국어에서 양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보조동사는 “버리다”인데 이 경우 ‘완결’이라는 기본의미 외에 심리적인 측면을 수반한다. (18a)의 경우 상황에 따라 ‘일이 다 틀려 버렸다’는 심리 상태의 표출이거나 (18b)의 경우처럼 ‘지원하다’의 양상 표출일 수 있다. 이 외에 ‘놓다, 두다, 치우다, 내다, 맡다’등의 보조용언들과 당위성을 보이는 의무 양상 보조동사로 ‘-해야 한다’가 양상의미를 표현한다((9) 참조).

- (18) a. 비가 와 버렸다.
 b. 앓던 이가 빠져 버렸다.

일본어의 양상표현도 영어 및 유럽언어에 발달되어 있는 조동사는 거의 볼 수 없고, 보조적 어미나 접사적 성격이 강한 조동사가 사용된다. 단지 (19)와 같은 의뢰 표현에서 보조동사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a)는 본동사 ‘te/de’형 뒤 보조동사에 ‘*kureru*(주다)’의 명령형이 연결된 경우이고, (19b)는 ‘*kudasaru*(주시다)’의 명령형이 접속된 예이다.

- (19) a. *Kata-o mon-de kure.*
 어깨-을 주무르-어 주어
 ‘어깨를 주물러 줘!’
 b. *Mado-o shime-te kudasai.*
 창문-을 닫-아 주세요
 ‘창문을 닫아 주세요.’

2. 서법어미

한국어에서 서법은 주로 선어말어미와 문말어미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데, 한국어는 각 서법에 해당하는 특수한 문말어미를 마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서, 의문, 명령, 청유 등 문장의 진술 방법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어미를 사용한다. 선어말어미 형태로는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겠-’이나 전형적인 증거 양태 표지로 쓰이는 선어말어미 ‘-더-’를 들 수 있다((2), (3) 참조). 어말어미 형태로는 문장의 진술 양상에 따라 ‘-네’, ‘-구나’, ‘-잖-’, ‘지’ 등을 들 수 있다. ‘네’와 ‘구나’의 경우 화자가 감각을 통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

을 확인할 때 이용된다. 또 ‘-잖-’ 구성은 [이미 앓]과 청자의 앓을 전제하는 [既知假定]의 속성이 갖춰졌을 때 이용된다. 이와 비슷하게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앓]을 전제로 하는 것은 ‘지’가 있다((20) 참조).

- (20) a. 우리 선생님이네!
 b. 요가 선생님이지 않아! 요가 선생님이잖아!
 c. 또 잊어 버렸구만. 또 잊어 버렸구만. 버렸군.
 d. 나는 저 애를 알고 있어, 저 애가 바로 영수 동생이지.

일본어의 경우 동사의 활용형(명령형, 의지형)으로 명령이나 의지의 양상을 표현하기도 한다. 활용어미 *-oo/yoo*는 의지표현과 추측표현을 나타내고, *-e/ro(yo)*는 명령표현을 나타낸다((21a-c) 참조). 또한 일본어는 활용어미 *-u/ru*, 즉 동사의 종지형(기본형)으로도 의지표현이 가능한데, 이것은 화자의 의지를 선언할 때 사용된다((21d) 참조).

- (21) a. Ame-ga fur-oo. (추측)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겠지.’
 b. Sono hon-o Yom-oo. (의지)
 그 책-을 읽-겠다
 ‘그 책을 읽어야지.’
 c. Sono hon-o yom-e. (명령)
 그 책-을 읽-어라
 ‘그 책을 읽어!’
 d. Taichoo-ga warui-node ashita-wa shiogoto-o yasum-u. (의지)
 몸의 상태-가 나쁘다-때문에 내일-은 일-을 쉬-다
 ‘몸 상태가 나쁘니 내일은 일을 쉴 거야/쉬겠어.’

3. 해당 어휘

문법화 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어휘를 통해서도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언어유형론적으로 볼 때 양상적 어휘에는 양상 형용사(/동사)나 부사, 양상 부가사(modal tags), 양상 첨사(modal particle), 양상 격(modal case) 등이 있다.

양상 부사와 형용사, 동사: 영어의 *probably, possibly, necessarily, maybe*는 인식 양상을 나타내는 양상 부사이다. 양상 부사들은 문법화가 더 진행되어 나중에는 양상 명제(modal notions)를 나타내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한국어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양상은 확실성, 비현실성, 의무 양태, 정감성(情感性)을 표시한다. 대응하는 양태 부사로는 “과연, 실로, 정말, 반드시, 꼭, 모름지기, 확실히, 틀림없이.../ 아마, 설마, 비록, 아무리, 상상컨대, 생각컨대, 짐작컨대.../ 원컨대, 바라컨대.../ 다행히(도), 기쁘게도, 슬프게도, 유감스럽게도...” 등이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형용사(22a, b)와 동사(22c)가 쓰여 양태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 (22) a. 오늘은 하늘이 참 맑다. / 내가 배가 고프다.
 b. 틀림없다, 확실하다, 정확하다, ...
 c. 믿다, 단정하다, 확인하다, 확신하다, ...

일본어의 양상 형용사로는 *-ni chigainai*(-임에 틀림없다), *-ni sooinai*(-임에 틀림없다), *hoshii*(갖고 싶다) 등을 들 수 있고, 양상 부사는 *dabun*(아마), *osoraku*(아마), *kitto*(틀림없이), *zehi*(반드시) 등이 있다((23a, b) 참조).

(23) a. Ocha-ga **hoshii**. (양상 형용사)

차-가 갖고 싶다/탐나다

‘차를 마시고 싶다.’

b. **Tabun** ashita-wa ame-ga furu-daroo. (양상 부사)

아마 내일-은 비-가 내리-일 것이다

‘아마 내일은 비가 내릴 것이다.’

일본어는 또 *-to omou*(-라고 생각하다), *-to iu*(-라고 하다), *-to kiku*(-라고 듣다), *-to/ yooni mieru*(-처럼 보인다) 등의 동사를 사용하여 양상을 표현하기도 한다((24) 참조).

(24) a. Ashita-wa ame-ga furu-to **omou**.

내일-은 비-가 내리다-라고 생각하다

‘내일은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해(내릴 거야).’

b. Kare-wa byooki-to **mieru**.

그-는 병-처럼/하게 보인다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

양상 부가사(modal tags): 양상 부가사는 한국어의 경우 “철수가 왔구만 그래”에서 “그래”, “철수가 왔네 뭐”에서 “뭐”에 해당하는 말이다. (25a)의 ‘그래’는 확인하는 기분을 표현하며, (25b)의 ‘뭐’는 화자의 의심스러운 기분을 나타낸다.

(25) a. 철수가 왔구만 그래.

b. 철수가 왔네 뭐.

일본어의 경우 위와 같은 이러한 기능을 종조사가 맡는다. 일본어

의 종조사는 어휘(단어)적 지위는 없으며, 문말에 사용되어 의문, 금지, 감동, 확인, 원망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인데 활용을 하지 않는다. (26a)의 *-ne*는 확인하는 기분을 표현하며, (26b)의 *-kashira*는 화자의 의심스러운 기분을 나타낸다.

(26) a. Keeki suki-desu-ne.

케이크 좋아하-입니다-이지

‘케이크 좋아하지요?. (그렇죠)’

b. Ashita-wa ame-ga furu-kashira.

내일-은 비-가 내리다-일지 몰라

‘내일은 비가 올까/지 몰라.’

양상 첨사(modal particles): 양상첨사는 부사와 비슷한데 어휘 자체의 의미보다 문맥이나 뉘앙스에서 화자의 입장이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영어의 *too*, *so*(‘contrary to what you said’), 한국어에는 ‘제발, 아무쪼록, 부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양상 첨사는 다양한 기원에서 발달하여 그 지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부사, 첨사, 형용사, 감탄사 등에서 비롯되는 일이 많다((27) 참조).

(27) a. 부디 영희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

b. 제발 살려 주십시오.

c. 아무쪼록 제군들이 승리하길 바랄 뿐이다.

일본어의 경우 *dooka*(부디/제발), *douzo*(자/어서/부디), *nanitozo*(제발/아무쪼록) 등이 양상첨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일본어 문법에서 부사로 취급된다.

(28) **Dooka** kono takarakuji-ga atari-masu-yooni
 부디 이 복권-이 당첨되-습니다-하도록
 ‘부디 이 복권이 당첨되기를!’

양상 격(modal case): 한국어는 일본어처럼 조사가 매우 발달한 언어인데, 특수조사 “까지, 마저, 도”에 의해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예문 (29)는 주격조사 ‘-가’ 대신에 특수조사 “까지, 마저, 도”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태도가 표현되고 있다.

- (29) a. 인수까지 왔다.(특수조사, 예기치 않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미 함축)
 b. 영화마저 왔다.
 c. 달도 밝다.

일본어도 조사가 매우 발달한 언어인데, 이 중 *-wa*(은), *-mo*(도), *-koso*(야말로), *-sae*(조차/마저), *-shika*(밖에), *-dake*(만/뿐), *-made*(까지/조차) 등의 부조사는 명사에 접속하여 강조, 한정, 한계, 감탄 등 양상적 의미를 표현한다. (30)은 주격조사 *-ga*(-가) 대신에 부조사 *-made*(까지/조차)나 *-mo*(도)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태도가 표현되고 있다.

(30) Roojin-**made/mo** odot-te iru.
 노인-까지(조차)/도 춤추-고 있다
 ‘노인조차/도 춤추고 있다.’

4. 기타

한국어에는 독립 범주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에 발달한 독립 범주를 소개한다. 영어와 같은 유럽 언어에는 양상을 나타내는 조동

사들이 특별히 발달해 있는데 일본어에 그러한 조동사는 없다. 일본어에 조동사라는 범주가 있지만 이는 동사라기보다는 보조적 어미나 접사적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서 조동사라 함은 이 접사적 성격의 보조 요소를 말한다.

양상 조동사: 일본어의 양상 조동사는 *-daroo*(-일 것이다), *-hazu-da*(-임에 틀림없다/ -일 터이다), *-rashii*(-인 듯하다), *-yooda*(-인 것 같다), *-mitaida*(-인 것 같다), *(suru)sooda*(-라고 한다), *-bekida*(-해야 한다), *-monoda*(-하는 법이다), *-kotoda*(-할 일이다), *-tsumorida*(-할 작정이다), *-kida*(-할 생각이다), *-mai*(하지 않을 작정이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daroo*, *-hazuda*는 인식 양상을, *-rashii*, *-yooda*, *-mitaida*, *-(suru)sooda*는 증거 양상을 나타낸다. 조동사 *-bekida*, *-monoda*, *-kotoda*는 의무 양상을 나타내며, *-tsumorida*, *-kida*는 동적 양상을 나타낸다. 조동사 *-mai*는 인식 양상과 동적 양상 둘 다 나타낼 수 있다. 이 조동사들은 모두 서술형 어미 뒤에 붙는데 이 범주는 동사를 보조하는 요소적 의미이며 접사적 성격이 강하다(34 참조).

양상 접사(Modal Affixes): 동사에 붙는 접사가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본어의 경우에는 *-(shi)sooda*(-할 것 같다), *-eru*(-할 수 있다), *-(r)areru*(-할 수 있다), *-dekiru*(-할 수 있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shi)sooda*는 감각적 증거를 나타내고, *-eru*, *-(r)areru*, *-dekiru*는 가능 표현에 사용된다. 일본 학교 문법에서는 이들 중 *-(shi)sooda*, *-(r)areru*도 조동사로 분류한다. 접사가 술어의 어간 및 연용형에 접속된다는 점에서는 조동사와 차이가 있지만, 활용한다는 점은 조동사와 공통적이다. 양상 접사의 예는 (16)에서 볼 수 있다.

IV. 양상적 의미의 변화

양상표현들도 흔히 문법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미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영어에서 양상조동사들이 인식양상과 의무양상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다. 한국어에서도 ‘겠’은 추측(추정)과 의지(의도)의 용법을 겸하는 중의성을 보이고 있다. (31a)는 명사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추정 양상을 나타내며, (31b, c)는 추정의 ‘겠’과 달리 동사와 존재사가 행동성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

- (31) a. 비가 오겠다.
 b. 내가 그 남자를 만나겠다.
 c. 나는 여기에 그대로 있겠다.

일본어 양상표현의 경우 영어만큼 체계적인 중의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중의성을 관찰할 수 있다. 먼저 능력을 나타내는 표지 *-dekiru*, *-eru*, *-(r)areru*는 (32)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허가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한국어의 ‘겠’에 해당하는 일본어 *-oo/-yoo*의 경우는 (33)와 같이 추측과 의지의 용법을 겸한다. 문어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mai*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부정추측과 부정의지를 나타낸다(34 참조).

- (32) a. *Watashi-wa oyog-eru.* (기본형: *oyogu*, 허가)
 나-는 헤엄치-할 수 있다
 ‘나는 헤엄칠 수 있다.’
 b. *Dare-demo jiyuuni oyog-eru.* (기본형: *oyogu*, 허가)
 누구-나 자유로이 헤엄치-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로이 헤엄쳐도 된다.’

- (33) a. Ashita - wa ame - ga fur - oo. (기본형: furu, 추측)
 내일 - 은 비 - 가 내리 - 겠다
 ‘내일은 비가 내릴거야.’
- b. Uchi - ni kaet - te tetebi - demo mi - yoo. (기본형: miru, 의지)
 집 - 에 돌아가 - 어 텔레비전 - 이라도 / 이나 보 - 겠다
 ‘집에 가서 텔레비전이나 보자.’
- (34) a. Mada ame - wa furu - mai. (기본형: furu, 부정적 추량)
 아직 비 - 는 내리다 - 지 않을 것이다
 ‘아직 비는 내리지 않을 거야.’
- b. Nidoto iku - mai. (기본형: iku, 부정의지)
 두 번 다시 가다 - 지 않을 것이다.
 ‘두 번 다시 가지 않을 거야.’

V. 양상과 다른 문법 범주

1. 양상과 시제

한국어의 시제는 과거시제와 비과거 시제로 크게 분류되는데, 양상과 시제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어에서 ‘겠’과 ‘ㄹ 것’은 비확실성을 나타내는 비과거 시제로 기능하지만 다음과 같이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문법적 형식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즉 (35)은 ‘겠’과 ‘ㄹ 것’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는 설명이 일반적이고 (36)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이들 판단의 지향점이 ‘추측’이나 ‘의지’이냐만 다르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이남순, 1998 참조).

- (35) a. (누가 뭐래도) 난 서울에 있겠어.
 b. (누가 뭐래도) 난 서울에 있을꺼야.

- (36) a. (그때쯤이면 아마) 난 부산에 있겠지.
 b. (그때쯤이면 아마) 난 부산에 있을꺼야.

언어에 따라 과거가 반사실, 가정, 공손한 요구를 나타내어 비실제적(non-actual)인 사태, 즉 반사실(irrealis)을 가리킨다. (37)에서 ‘-더-’는 지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때까지는 알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던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었을 때만 사용된다. (38)의 ‘-었-’도 객관적 시제표시와 관계없이 사건에 대한 인식양태를 표출하고 있다. 즉 화자의 의식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주관적으로 인식한 화자의 단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37) a. 며칠 전 철수는 학교 앞 문방구에 있더라.
 b.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깊어지더라.

- (38) a. 내일 소풍은 다 갔다.
 b. 너 이제 취직은 다 했어.

일본어의 경우 시제는 과거시제와 비과거시제로 분류되는데, 과거시제는 *ta*-형, 비과거시제는 *ru*-형(기본형)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술어의 *ta*-형 중에는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예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결정의 완결, 발견·상기(想起), 확인, 긴박한 명령, 반사실 등과 같은 양상표현을 나타낼 경우이다((39) 참조, 益岡隆志·田窪行則 1995; 윤상실 외 2002).

- (39) a. *Sore kat-ta!* (경매에서 결정의 완결)
 그것 사-었다
 ‘그거 산다.’
- b. *Koko-ni at-ta.* (뭔가 물건을 찾다가 발견)
 여기-에 있-었다
 ‘여기에 있다/있군.’

2. 양상과 부정

부정이 반사실의 일부로 인식되어 부정과 양상 사이의 일정한 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일반적인 부정표현은 부정부사 ‘안/못’ 등이 이용되지만 인식 양상 또는 의무 양상을 나타내는 표현에서는 일반적인 부정과 다른 표현들이 사용된다. 예문 (40a, b)는 각각 인식을 나타내는 부정표현이며, 예문 (40c, d)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과 그에 대한 부정표현이다. 예문 (41)는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과 그에 대한 부정표현이며, 예문 (42)은 부정적 인식과 의구심을 갖는 부정 표현의 양태로 간주된다.

- (40) a. 내일 비가 올지 모른다.
 b. 어쨌면 그가 독일에 있을지도 모른다.
 c. 너는 좀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d. 당신은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
- (41) a. 당신은 집에 가도 좋다.
 b. 당신은 집에 가서는 안 된다.
- (42) a.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b. 행여 그의 소식을 알까?

일본어의 경우 일반적인 부정표현은 접미사 *nai/anai*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그러나 의무 양상을 나타내는 표현에서는 일반적인 부정과 다른 표현들이 사용된다. 예문 (43a, b)는 각각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과 그에 대한 부정표현이며, 예문 (44a, b)는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과 그에 대한 부정표현이다.

(43) a. *Anata-wa gakkoo-e ik-anakeba naranai.*
 당신-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b. *Anata-wa gakkoo-e it-te-wa naranai.*
 당신-은 학교-에 가-어-는 안 된다.
 ‘당신은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

(44) a. *Kimi-wa uchi-e kaet-te-mo ii.*
 너-는 집-에 가-어-도 좋다
 ‘너는 집에 가도 좋다.’

b. *Kimi-wa uchi-e kaet-te-wa ikenai.*
 너-는 집-에 가-어-는 안 된다
 ‘너는 집에 가서는 안 된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살핀 바를 요약하면 명제 양상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입장으로 문장 내용에 대한 확신의 정도와 관련이 있고 사건 양상은 명제보다는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화자의 입장을 보인다.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명제 양상과 사건 양상이 존립한다. 인식 양상은 확실성의

정도에 대한 화자의 판단인데, 이것을 나타내는 방식은 언어에 따라 다르다. 영어는 *may*, *must*, *will* 등의 조동사를 사용하고, 한국어는 {틀림없이, 아마도, 어쩌면}과 같은 부사나 ‘알다/모르다’를 포함한 우연적 표현, 선어말어미 ‘겠’에 의해서 나타난다. 일본어는 어미 *-oo/ yoo*(-일 것이다), 조동사 *-daroo*(-일 것이다), *-hazu -da*(-임에 틀림없다/-할 터이다), 형용사 *-ni chigainai*(-임에 틀림없다), 어구 *-kamo shirenai*(-일지도 모른다) 등이 대표적이다. 증거 양상은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증거를 표현하는 것으로 한국어의 증거 양상 표현은 ‘-더’가 대표적이며, 일본어의 경우 *-yooda*(-인 것 같다), *mitaida*(-인 것 같다), *rashii*(-인 듯하다) 등의 조동사와 접미어 (*shi*)*sooda*(-인 것 같다)가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어의 의무 양상은 크게 당위와 필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동사 ‘-해야 한다’나 선어말어미, 양태성 부사와 어울린다. 일본어의 경우 의무 양상은 어구와 조동사에 의해서 표현된다. 한국어 동적 양상은 의향(의지) 표현의 경우 ‘겠’이나 ‘ㄹ 것’이 쓰이고, 일본어 의향(의지) 표현 형식은 활용어미 *-oo/yoo*, 동사의 기본형(종지형) *-u/ru*, 조동사 *-tsumorida*(작정이다), *-kida*(-할 생각이다) 등이 주로 나타난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양상 표현의 방식은 다양하다. 대체로 보조동사, 서법어미와 해당어휘 즉 양상적 어휘인 양상 형용사(/동사)나 부사, 양상 부가사(modal tags), 양상 첨사(modal particle), 양상 격(modal case) 등을 통해서 나타난다. 또 한국어에는 독립 범주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에 발달한 독립 범주는 양상 조동사와 양상 접사가 있다. 일본어의 양상 조동사들은 모두 서술형 어미 뒤에 붙는데 이 범주는 동사를 보조하는 요소적 의미이며 접사적 성격이 강하다. 양상 접사는 동사에 붙는 접사가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shi) sooda*(-할 것 같다), *-eru*(-할 수 있다), *-(r)areru*(-할 수 있다), *-dekiru*

(-할 수 있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양상표현들은 문법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미로 발전하며, 다른 문법 범주와도 관련을 갖는다. 대표적으로 양상과 시제, 양상과 부정 등이 양상 범주와 상관성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 고영근(1995). 단어·문장·텍스트. 한국문학사.
국어연구회 편(1990). 서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권재일(1994). 한국어 문법의 연구. 서광 학술 자료사.
김미영(1998). 국어 용언의 접어화. 한국문화사.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이남순(1981). “‘겠’과 ‘ㄹ 것’”. 관악어문연구6(서울대).
이남순(1998). 시제·상·서법. 월인.
이익섭·이상억·채완(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윤상실 외 2명(2002). 일본어학의 이해. J&C. 143-145.
會田貞夫·中野博之·中村幸弘(2004). 學校で教えてきている現代日本語の文法. 右文書院.
益岡隆志·田窪行則(1995). 基礎日本語の文法 改訂版. くろしお出版. 110-111.
松村明(1994). 日本文法大辭典. 明治書院.
宮崎和人 외 3명(2002). 新日本語文法選書4 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田中春美(1988). 現代言語學辭典. 成美堂.
Palmer, F. R.(2001). *Mood and Modality*.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